

“우리들의 벗이요 ^

동반자가 되길...” 인



김 찬 채

(본회 안양시흥지부장)

요사이 우리 양돈인은 태풍 전야를 맞는 심정이다. '94년도 신선 돈육의 수입과 '97년도의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의 태풍이 오기 때문이다.

월간 양돈지를 접하는 순간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릴까 하고 몹시도 반갑게 순식간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또 궁금증이 생긴다. 그 까닭은 아직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간의 월간 양돈지는 우리의 권익보호와 양돈인의 길잡이로서 공헌하여 왔으며 내용면으로도 크게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다소 언급코자 한다.

첫째 : 우리와 경쟁상대국들의 돼지 생산원가이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90kg돼지 생산원가를 우리를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52%, 덴마크는 79%라 하니 미국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서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돼지가 우리들

돼지와 다른 것도 아니며, 그들의 하루가 48시간인 것도 아닌데 하는 궁금증이 있다.

그들의 양돈 사육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노-하우가 있다.

협회에서는 미국의 전문 양돈인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월간 양돈지에 투고케 하여 그들이 감춰두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씩 벗겨 우리들도 빠른 시일내에 뒤쫓아가야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의 태풍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 : 월간 양돈지는 학술 논문집도 아니요 단편 시집도 아니다.

그러므로 월간 양돈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돈산업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혼미한 상태인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방향의 설정과 진로를 바로 잡아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수입 자유화를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더 선명히 유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실무 참고서가 되어야 한다. 알찬 내용 하나하나가 참고가 되어 월간 양돈지를 합철해두면 궁금할 때 들쳐보는 참고서가 되고, 잊었을 때 비망록 역할을 할 수 있게 편찬되어야 한다.

셋째 : 월간 양돈지는 우리의 귀와 눈이 되어 주어야 한다.

월간 양돈지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대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 어떤 결과로 성공했느냐를 알려주는 정보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그동안 월간 양돈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월간 양돈지가 진정한 우리의 벗이 되고, 친숙한 동반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